

KOICA는 동티모르 아이나로주의 모자보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지 의료진의 역량강화, 지역 보건 교육에 힘써왔으며
올 연말에는 모자보건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NSIDE 배우 송재희의 ODA에 대한 생각
OVERSEAS KOICA 카리브해의 아인슈타인 만들기 총력전
WHAT'S ODA 만드로사의 '저비용 고효율' 전자의수 보급사업

지구촌 가족

2017. Autumn
Vol. 6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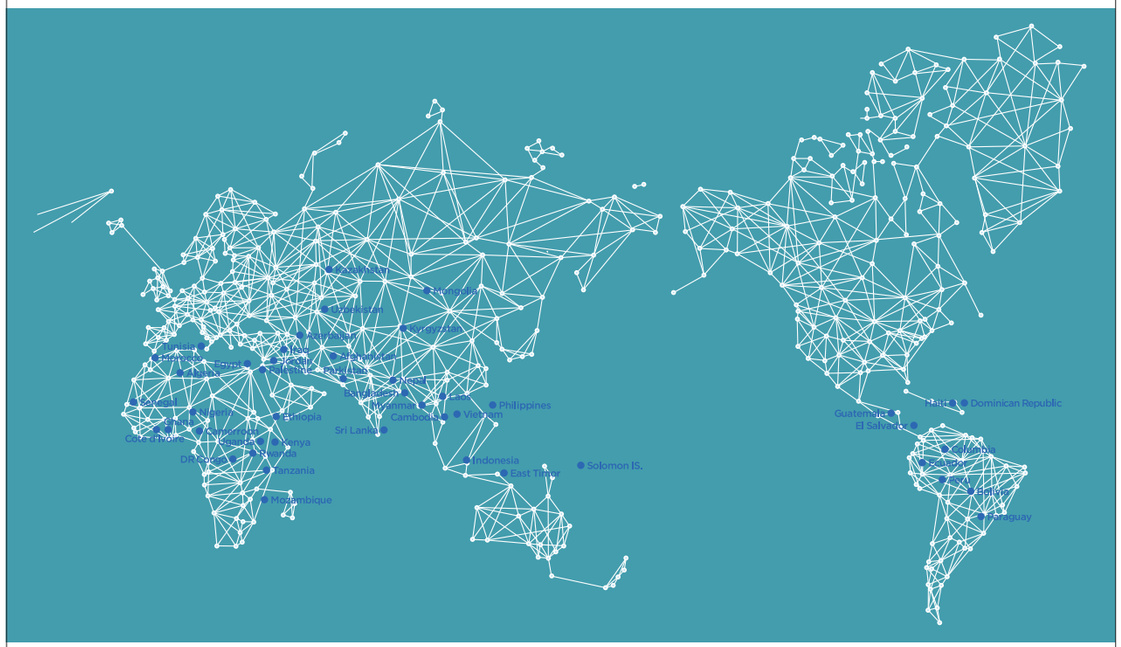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7. Autumn / Vol. 6

KOICA INSIDE
코이카 人사이드

04
KOICA 홍보대사 송재희의 '이 남자가 사는 법'
"KOICA에서 봉사 가라면 언제든 OK죠"

08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1회 졸업생 배출
실크로드에 청년창업 탄탄대로 열리다

10
세네갈·코트디부아르에서 활약하는
임지은 태권도 봉사단원의 이야기

12
태권도를 통해 꿈을 찾다
우리도 몰랐던 태권도의 힘!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14
에콰도르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안데스 산기슭에 희망의 씨앗 심다

16
KOICA의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카리브해의 아인슈타인 만들기 총력전

18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건립사업
정체기 섬유산업에 새 활력소

20
KOICA의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자보건 개선사업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미소에서 미래를 발견하다

WHAT'S ODA
ODA 알아보기

22
만드로사의 '저비용 고효율' 전자의수 보급사업
시리아 부상 난민에 스마트한 전자손을

24
뷰노의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성매개질환 고통 몽골에 '한 줄기 빛'

26
황인규 넥스지오 전무의
'몽골 IT 교육 기회 제공 사업' 이야기

28
SDGs 16번째 과제
'포괄적 사법제도와 행정제도의 확립'

30
SDGs 17번째 과제
'지속가능개발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최성호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7-06-107
발행일 2017년 10월 16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코이카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코이카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글 정자림
사진 배상훈

'KOICA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송재희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8월호 'KOICA 人사이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08/content1.php?code=201708_010101

KOICA 홍보대사 송재희의 '이 남자가 사는 법'

'정글의 법칙'에서 의욕 불사르는 쾌남 "KOICA에서 봉사 가라면 언제든 OK죠"

말끔하고 반듯한 '실장님'과 '꽃선비' 이미지로 대중에게 익숙했던 배우 송재희. 그런 그가 최근엔 '멋짐'을 벗어던지고 온몸 바쳐 '엉뚱하고 웃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간단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한결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을 무장 해제시킨 그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홍보대사로서, 배우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꽃선비 역할로 주목… 예능 프로선 엉뚱캐릭터로 인기

'배우 송재희'를 처음 본 것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서였다. 시청률 40%를 가뿐히 넘기며 가히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엔 김수현과 한가인을 비롯해 꽤 걸출한 배우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상하고 반듯한 꽃선비 역의 난생처음 보는 배우가 왠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일까. 송재희는 이후 줄곧 말끔하고 반듯하게 잘 자란 '첫사랑'이거나, 외모부터 능력까지 다 갖춘 소위 '실장님' 역할로 대중을 찾아왔다. 지난해 '예능'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드라마'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난 송재희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마치 작정한 듯 '엉뚱하고 웃긴' 면모를 드러내며 빵빵 터뜨리던 그는 급기야 최근 SBS '정글의 법칙'을 준고정으로 꿰차며 화장기 하나 없는 벌건 얼굴로 온몸 바쳐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 왠지 낯이 익다.

2013년 DR콩고로 봉사활동 갔던 'KOICA인'

그의 이력을 다시 훑다 보니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까지 TV조선이 방영했던 '코이카'가 눈에 들어왔다. 연예인과 의사들이 DR콩고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꼭 맞는 적정기술을 전해주는 13박14일의 여정을 담았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 KOICA와 인연을 맺었던 그는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KOICA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었다. KOICA에 행사가 있을 때면 한걸음에 달려왔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KOICA 홍보대사'임을 밝히며 ODA와 나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던 것.

그렇다면, 그 기회를 제대로 만들기로 했다. KOICA 홍보대사로서 그가 지닌 소신과 가치관,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여기,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01

01
2013년 '코이카 로드' 촬영차 DR콩고를 방문했던 송재희 KOICA 홍보대사.

Q_요즘 근황은 말씀 안 해주셔도 알겠어요. KBS2 '해피투게더'는 거의 단골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것 같고, SBS '정글의 법칙'도 준고정급이던데요. 각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의욕과 활약도 대단하고요. 예능 욕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땐 곧잘 웃기기도 하고 좀 엉뚱한 모습도 드러내지만, 굳이 그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연기를 하다 보니 어느 한 이미지에 묶여 있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제 안에는 더 많은 모습이 있는데, 내 말투로, 내 캐릭터 그대로 연기해도 될 것 같은데, 촬영 현장에서부터 먹히질 않더라고요. 감독님들 말씀이,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와 감독님들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즈음 감사하게도 예능프로그램을 할 기회가 왔고,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Q_단순히 '웃기고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남다른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젠가 MBC '라디오스타'에서 얘기했던 '로싸모(로봇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 이야기를 보면서 엉뚱하지만, 뭔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일부러 재미있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SNS 같은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원래 목적을 잃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분별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공감하기도 전에 지루하잖아요. 제 생각이 좀 더 친근하게 효과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단순화하기도 하고, 더 엉뚱하게 오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거짓이란 뜻은 아니에요. 제 안엔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어떤 모습을 꺼낼지가 제 의도이고, 전략인 셈이죠."


01

Q_보기보단 굉장히 전략적이시네요. 그 전략이 가장 성공한 적은 언젠가요?

"사실 예능프로그램에서 대단히 성공했던 적은 없어요. 뭔가 의욕을 가지고 덤비면 오히려 잘 안 풀리더라고요. 진짜 성공했다 싶은 건 SNS를 통해서였어요. 몇 해 전 한창 날씬한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난민팔뚝'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난민'이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몸이 앙상해진 그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가볍게 수식어처럼 쓰는 걸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SNS에 난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올리고, 그 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되면서 당시 소속사에서도 깜짝 놀랐죠. '왜 경솔하게 이런 글을 올렸냐'고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그때가 가장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난민팔뚝'이란 표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Q_그때가 이제 막 대중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시기였을 텐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능에 자주 나서는 이유도, 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 영역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고, 나머지 반은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기 위해서예요."


02


03


04

Q_그러고 보니 다른 인터뷰에서도 'KOICA 홍보대사'인 점을 종종 피력하시더라고요. 직접 다녀오신 봉사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2013년 '코이카 로드' 촬영으로 KOICA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그때 간 곳이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DR콩고라는 나라였는데, 그곳 평균 수명이 남성은 47세, 여성은 50세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도 그곳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해맑은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자체만으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과 행복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KOICA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Q_KOICA 사업의 형태와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중에겐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코이카 로드' 이전에는 KOICA에 대해 잘 몰랐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일어선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돕는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많은 부분들이 원래 그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돕는다'기보다는 '돌려준다'는 표현이 맞겠죠."

01
지난 5월 지구촌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한 송재희 KOICA 홍보대사.
02 03 04
2013년 DR콩고에서의 봉사 활동이 KOICA와의 첫 인연이 되었다.

Q_그 편이 ODA의 이상적인 개념이긴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돌려준다'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좋을까요?

"음…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설명해보죠. 어느 여름날 한껏 멋을 내고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 옆을 지나는 자동차에서 유난히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에어컨을 트느라 밖으로 더 뜨거운 열기가 나오게 된 거죠. 순간 화가 치밀었죠. 그 더운 날, 자기 혼자 시원하자고 남에게 뜨거운 김을 끼얹고 다니는 격이었으니까요.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같이 공유했어야 할 자원인데 선진국이 선점하고 오염시키고, 후진국은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보이는 경우지만, 그 이외의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Q_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KOICA 홍보대사로서의 고민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바라는 바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봉사도 가고 싶고요. KOICA에서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 OK죠."

Q_연기자로서의 행보도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동경'보다 '공감'이 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한 캐릭터에 욕심을 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다행히 들어오는 배역이 다양해졌어요. 조만간 여러분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조금은 달라진 연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배우이자 이 시대의 미디어플레이어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1회 졸업생 배출

실크로드에 청년창업 탄탄대로 열리다

지난 6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이하 직훈원)에서 첫 졸업식이 있었다. 200여명의 졸업생 중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쿠르가에바 사마리아였다. 컴퓨터가 없어 PC방을 서성였던 어린 꼬마는 이제 어엿한 광고회사의 CEO가 됐다. 사마리아와 그녀를 가르친 최홍규 봉사단원을 만나 연수생에서 광고회사 대표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02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교통요충지다. 우즈베크 정부는 경제 성장과 내수 확대를 위해 2·3차산업 육성 필요성을 자각했고,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KOICA는 수도 타슈켄트에 이어 사마르칸트에 두 번째 직훈원을 설립해 기술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 분야는 자동차 정비, 용접배관, 전기·전자기기 수리, 정보통신기술이다.
사마르칸트 직훈원의 첫 졸업생인 사마리아는 이 훈련과정이 현지의 청년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회와 변화를 선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타슈켄트 IT대학에 입학했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 그러나 KOICA 직훈원 사업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 직훈원 졸업 후 광고회사를 창업한 그녀는 현재 훈련원 동기 4명을 직원으로 두고 젊은 여성 CEO로서 활약하고 있다.

Q_제1회 졸업식의 주인공이 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직훈원의 첫 졸업생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 건설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마르칸트 직훈원 건립을 담당하면서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 IT, 생산업 분야가 발달한 한국의 교육을 받게 돼 큰 기대에 찼었습니다. 직훈원 졸업과 함께 제 꿈도 이뤄 기쁩니다."


03


04

Q_직훈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나요? 실제 유용하게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공한 IT학과에서는 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운영시스템 등을 배웁니다. 교육과정은 총 10개월로 6개월은 이론을, 4개월은 현장실습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이 가장 흥미로웠으며, 당시 배웠던 지식을 전산 처리와 홍보물 제작 등 회사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Q_광고회사를 창업한 계기가 따로 있나요?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광고회사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제 동기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었기에 그간 관심 있던 '광고' 분야에서 창업을 계획했습니다. 직훈원 선생님의 도움에 힘입어 실행할 수 있었고, 동기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연락은 제가 담당하고, 직원 4명은 재료 구매,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_사마리아에게 직훈원이란?
"직훈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우즈베크에서 형편에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 시설과 교육 혜택을 누리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직훈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KOICA와 최홍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 사마르칸트 직훈원 건립비 앞에서 사마리아와 최홍규 봉사단원.
02 사마리아 광고회사 모습.
03 사마리아와 최홍규 봉사단원의 수업 모습.
04 에르가쉐브 원장(왼쪽)이 제1회 졸업식에서 졸업증을 건네고 있다.

Q_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해요.
"종이, 조명 등 광고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모든 수입품은 달러로 계산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죠. 그렇기에 우즈베크에 여러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가서 해당 기술을 배워 사마르칸트에 생산업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성 키워가는 시대의 아이콘들이 됐으면"

최홍규 *월드프렌즈 KOICA 110기 시니어 봉사단원

Q_사마르칸트 직훈원에서 학생들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지난해 10월 24일 첫 부임했습니다. 최신 시설과 기자재들이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을 북돋아주었고, 첫 신입생들의 희망찬 눈빛을 보면서 지식 전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척박해지지 않도록 인성교육에도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죠."

Q_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0명씩 두 반으로 구성된 IT학과 학생들을 위해 하루 4시간, 일주일에 4번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 한국어 수업도 운영하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며 방학에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Q_사마리아는 직훈원 졸업생 중에서도 손꼽히는 우수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수생이었나요?
"사마리아 학생과는 첫 정규수업 시간에 만났습니다. 수업에 열중하는 자세가 좋았으며,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하는 열정이 대단했지요. 수업 준비와 학교행사에도 솔선수범했고, 매사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Q_사마리아를 비롯한 졸업생들에게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됐으면 합니다. IT 기술 인력으로서 우즈베크의 산업 발전을 이끌길 바랍니다. 젊음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월드프렌즈 KOICA 시니어 봉사단: 일반 봉사단원 중 파견 분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만 50세 이상 62세 이하의 해외봉사단원

글 김지윤(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01

임지은 세네갈 · 코트디부아르 파견 태권도 봉사단원

"처음엔 누군가를 돕게 돼 좋았는데 정작 혜택을 누린 건 내 자신"

미국 시카고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임지은씨. 그녀를 세네갈행 비행기로 이끈 것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속 '해외봉사'란 네 글자였다.
7년 전 월드프렌즈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세네갈에서 겨루기 대표팀을 지도했던 그녀는 현재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협회에서 지도자 교육을 맡고 있다.
두 번의 KOICA 해외봉사를 통해 성숙한 태권도인이 된 임지은 단원의 성장기를 들어본다.

Q_코트디부아르에 오기 전 세네갈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으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아프리카 언어와 문화가 생소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 해외봉사를 나갔을 때 어떻게 적응했나요?

"처음에 선수들이 프랑스어가 어색한 외국인 코치에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해결책으로 세네갈 전통 언어인 월로프어를 배웠습니다. 선수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인사하니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훈련할 때는 프랑스어를 썼지만, 평소에는 월로프어를 사용하며 선수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Q_주로 남성들로 선수단이 구성되었는데, 여성 태권도 사범으로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세네갈은 국민의 95% 이상이 이슬람교입니다. 함부로 남자가 여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으므로 여성 선수들 자세를 교정해줄 여성 사범이 필요했어요.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태권도 6단 사범이다 보니 두 국가의 모든 선수가 예를 갖춰줬어요."

Q_세네갈에서 프랑스어 태권도 교본을 만들어 신문에도 실렸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세네갈 태권도 교본은 구식 용어와 잘못된 정보가 많았어요. 또 현지 사범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교본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본에 태권도의 뜻과 동작, 명칭 등을 넣었고, 현지 사범들과 KOICA 단원들이 모델이 됐어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제작해 뿌듯했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사범들을 위한 전용 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02



03

01
코트디부아르 태권도협회 관계자와 태권도 파견 단원들.
02
어린 선수의 자세를 교정하는 임지은 단원.
03
세네갈에서 발간된 태권도 교본.

Q_세네갈에 이어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봉사단원에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세네갈에서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며 인내를 배웠고, 태권도를 깊이 연구할 수 있어 감사했어요. 봉사를 마친 후 미국에 돌아갔는데, 저 자신이 내면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KOICA 해외봉사는 최고의 자기 발전 기회라 생각했어요. 더 성장하기 위해 다시 지원했습니다."

Q_코트디부아르 태권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겨루기는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품새나 시범단은 국가대표팀이 없어요. 코트디부아르 태권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려면 품새와 시범 분야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2016년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서 세이크 살라 시세(Cheick Sallah Cisse · 23)가 코트디부아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Q_코트디부아르에 KOICA 태권도 봉사단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코트디부아르에 태권도를 전파한 김영태 사범이 1995년 한국으로 돌아간 후,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수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지 사범들은 개정된 동작들을 배우지 못했고, 구식 태권도 동작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단원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태권도 정보를 현지 사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Q_도복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코트디부아르 일반 도장을 돌며 선수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선수들이나 사범들이 입고 있는 도복에 한글이 많았는데, 이 도복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물으니 현지 중고시장에서 약 4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의류수거함에 있던 도복들이 아프리카까지 오게 된 거죠. 도복 값이 부담돼 중고시장에서 샀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도장에 남는 도복이나 작아서 못 입는 도복 중 쓸 만한 것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도복이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하면 같이 일하는 사범과 상의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Q_앞으로 1년 정도 파견 기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현지 사범들에게 제대로 된 태권도 지도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교육 방식은 동작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몸으로 보여주며 가르치곤 하는데,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하나는 시범단을 만드는 겁니다.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은 점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점프를 활용한 격파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멋진 시범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글 하철민(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태권도를 통해 꿈을 찾다
우리도 몰랐던 태권도의 힘!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가 '태권도 교육'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다. 2017년 7월까지 40개국, 약 500명(국제협력요원 포함)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도대체 태권도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에 답해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태권도를 통해 성장한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더 많은 태권도 챔피언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와타라 이브라이마(Ouattara Ibrahima · 54 · 코트디부아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축구를 했었는데 항상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런 나에게 형이 태권도를 추천했어요. 태권도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천식이 있는데 태권도 덕분에 현재는 매우 건강해졌죠. 겨루기 선수가 된 후에는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후 쭉 태권도와 연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코트디부아르 태권도협회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제 제 꿈은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KOICA 해외 봉사단원들에게 수업을 받아서 앞으로도 코트디부아르*에서 태권도 챔피언이 나올 수 있게 할 거에요. KOICA가 이와 관련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KOICA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죠."

*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대 후반 김영태 사범이 건너가 태권도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태권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수도 아비장 곳곳에서 태권도장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태권도가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에도 꾸준히 선수를 배출하며 태권도 유망국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셰이크 살라 시세가 태권도 종목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에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기며 태권도 인기가 정점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이라는 꿈을 가지게 돼"

코네 나모고 아멧(Kone Namogo Hamed · 24 · 코트디부아르)



"KOICA를 통해 태권도를 처음 접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꼈어요. 태권도를 배우기 이전에 나는 다소 공격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됐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몸에 익힌 질서를 지키는 습관 덕분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또 태권도를 배우면서 올림픽 출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2013 세계 태권도선수권 경기에 나갔을 때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 대회에서 수상은 하지 못했는데 다시 국제대회에 나간다면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태권도는 나의 모든 것"

니샤 라왈* (Nisha Rawal · 22 · 네팔)



"학교의 다양한 체육수업 중에 아버지가 태권도를 추천했어요. 태권도 대회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태권도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죠.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한 후에는 모두가 나를 알게 됐어요.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가장 큰 성취예요. 올림픽대회는 아니었지만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성취감을 느낀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올림픽을 포함한 다양한 태권도 경기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 니샤 라왈은 2014 에베레스트 국제오픈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2016 리우올림픽, 2017 무주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국제무대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금메달 따고 나서 태권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리우 나학(Lew Narhuk · 19 · 라오스)



"KOICA가 실시하는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을 통해 처음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 였고, 둘째는 겨루기 종목이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용기와 인내를 길렀고 겨루기를 통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또 예절을 배우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며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라오스 전국학생체육대회 태권도 부문에서 동메달을 3번 땄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개도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태권도

태권도의 정신적 기반은 평화와 공정성이다. 태권도에서 공격보다는 방어 기술을 강조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수련은 정확한 판단력과 자신감을 길러 강자에게는 강(强)하고 약자에게는 유(柔)하게 대처하는 정신적 성숙을 이끈다. 태권도의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스스로 단련하고, 삶을 즐기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빈곤 문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을 강조했다. 빈곤이 단순히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도 KOICA는 태권도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글 강효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코트디부아르 · 네팔 · 라오스 사무소




01


02

에콰도르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2차 사업
안데스 산기슭에 희망의 씨앗 심다

남미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주(州)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안데스산맥의 대표적 고지대로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연평균 강우량의 감소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주민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침보라소산의 만년설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관개시설 구축과 영농기술 지원을 통해 침보라소 주민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에콰도르 최고봉 침보라소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안데스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150㎞를 더 가면 해발고도 6,268m의 에콰도르 최고봉 침보라소(Chimborazo)산이 있다. 흔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에베레스트를 꼽지만, 타원형인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를 잰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산은 다름 아닌 침보라소산이 된다. 안데스 원주민들은 침보라소산을 신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여기며 신성시한다. 최근 KOICA는 이 영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침보라소 주(州)에서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침보라소 주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고지대로 구름이 손에 잡힐 듯한 청정의 고지대지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왔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강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에콰도르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침보라소 주 정부는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빈농 감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침보라소 주 인구의 38%는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내 빈곤층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가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현안이다.

01
KOICA가 건설한 관개수로.
02
인터뷰에 응한 호세피나 지역주민 앙헬 로메로씨(왼쪽)와 이웃 주민.

메마른 고원의 삶을 촉촉하게

2012년 KOICA는 고산지대의 척박한 산비탈에 밭을 일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1차 사업'으로 21.3㎞에 달하는 관개수로를 건설했다. 침보라소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 관개시설은 에콰도르 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리아노 쿠리카마(Mariano Curicama) 침보라소 주지사는 "새 물길, 새 미래가 열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주개발은행에서 KOICA가 건설한 수로를 본선으로 63개 지선을 확장하는 등 KOICA 사업이 심은 씨앗은 지금도 침보라소 지역 전체로 가지를 뻗고 있다.

KOICA의 관개수로 건설을 통한 침보라소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 프로젝트는 침보라소 주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KOICA는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2차 사업을 통해 산파블로(San Pablo), 호세피나(Josefina), 지오(Llio) 3개 원주민 마을에 21.4㎞의 관개수로 및 저수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영농기술 교육도

KOICA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동부엔지니어링과의 협력을 통해 관개수로 건설뿐 아니라 영농기술교육센터 건립을 병행하여 침보라소 주정부와 주민들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최신 농 · 축산기술 및 수자원 관리체계 등을 교육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상품작물 재배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2017년 5월 초청연수에 참여한 산파블로 마을 대표 돌로레스 파카(Dolores Paca)씨는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농촌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침보라소 지역의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OICA는 우리에게 물을 넘어 미래를 선물"

취재 당시 마을 주민들은 여느 때와 같이 에콰도르사무소 직원들을 반겨주었다. 주민들은 직접 구운 빵과 음료를 가져와 KOICA 사업이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호세피나 마을 주민 앙헬 로메로(Angel Romero)씨는 인터뷰를 통해 "KOICA는 우리에게 물을 넘어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KOICA의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목마름을 해소하는 청량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글 · 사진 이태규(KOICA 에콰도르사무소 영프로페셔널)



01

KOICA의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카리브해의 아인슈타인 만들기 총력전

중미 카리브해에 자리 잡아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관광국 도미니카공화국. 관광국으로 유명한 만큼 서비스업이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제조업 및 농·축산업은 각각 22%, 1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나섰다.

KOICA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과 기업의 긴밀함 정도가 인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울산에서 열린 아시아대학총장회의에서 한 지영석 의장의 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시아대학총장회의를 비롯하여 산학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수많은 컨퍼런스와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추세다.
대학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문화와는 다르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의 규모는 크지 않다.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도미니카공화국 대학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대학 연구개발과 민간산업 부문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학협력 R&D 시스템의 부재로 대학의 산업 발전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1970~1980년대를 들여다보면 한국 또한 산학협력 연계가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카이스트(KAIST · 한국과학기술원)가 산학협력 R&D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KOICA는 카이스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부처와 손잡고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2015~2018 · 400만 달러)을 펼치고 있다. 사업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운영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01
2017.4.20(목) 산토도밍고 바르셀로호텔에서 KOICA 도미니카공화국-산학협력프로그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KOICA 정영선 소장, 고등교육과학기술부(MESCyT) 알레한드리나 헤르만(Alegandrina German), 플라시도 고메즈(Placido Gomez) 차관, 경제개발기획부(MEPyD) 이노센시오 가르시아 하비에르(Inocencio Garcia Javier) 차관 등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02
카이스트 측에서 참석한 김원준 교수 등 전문가 6명 및 관계자들.

성공적인 산학협력 R&D 프로그램 모색

KOICA는 지난 4월 20일 산토도밍고 소재 바르셀로(Barcelo)호텔에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사업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도미니카공화국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증명했다.
개회식에서 수원국 고등교육과학기술부 헤르만(German) 장관은 "KOICA 사업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영선 KOICA 사무소장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있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수원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카이스트는 ▲산학협력 R&D 프로그램 소개 ▲성공적인 산학협력 R&D를 위한 핵심요소 소개 ▲카이스트 장학금 및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소개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의 산학협력 우수 사례를 소개했으며, 수원국의 산학협력 실태 설문조사와 토론 세션을 통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한국으로 연수 실시… 우리 학자들, 현지 방문도 활발

KOICA는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초청연수, 카이스트 이공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컨설팅 자문 또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방한 초청연수는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1차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고등교육과학기술부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 모델 및 산학협력 모델에 관한 연수에 참여했다. 오는 10월에 2차 연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중장기 컨설팅 자문 또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이스트 출장단이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해 활발한 컨설팅 활동을 실시했으며, 8월엔 올 들어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원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한국 및 선진국의 산학협력 모델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활동을 했으며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실태에 맞추어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도미니카공화국의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사 체계 수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공학교육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특성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국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인적자원 개발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이 중남미 경제개발의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02

글·사진 이나영(KOICA 도미니카공화국사무소 영프로페셔널)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건립사업

정체기 섬유산업에 새 활력소
KOICA가 초석을 마련해주다

현재 파키스탄의 산업 발전 수준은 여전히 초창기에 머물고 있다.
세계 4위 규모의 면화 생산량 덕분에 한때 황금기를 맞았던 섬유산업 역시 정체기를
맞은 지 오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



02


03


04

섬유산업은 파키스탄 국가 총 수출 수익의 57%와 국내총생산(GDP)의 9% 비중을 차지한다. 인더스강 유역의 넓은 경작지와 세계 4위 규모의 면화 생산량 덕분에 파키스탄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섬유산업은 약 250만명을 직접 고용한 것은 물론, 관련 일자리 약 1000만개를 창출하며 파키스탄 경제에 이바지해온 것. 그러나 전력 부족, 테러 위협, 정치 불안과 더불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값싼 섬유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오늘날 파키스탄 섬유사업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 섬유산업이 기존 의류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산업 발전 수준은 여전히 초창기에 머물고 있다.

산업용 섬유 각광…

이웃나라 인도도 섬유센터 8곳 설립

산업용 섬유(Industrial 혹은 Technical Textile)란 '디자인과 색깔보다 기술적 성능과 물리적 성질이 중요시되는 고난이도의 유연한 섬유'를 의미한다. 이에 걸맞게 산업용 섬유의 활용 범위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자동차용 카펫, 안전벨트서부터 아파트 단열재, 장판, 의료용 거즈, 인공관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좀 더 가볍고 튼튼한 신소재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산업용 섬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듯 세계 산업용 섬유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약 11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섬유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고성능 산업용 섬유를 생산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치 · 경제적 경쟁국인 인도도 전국에 8개 산업용섬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섬유 주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산업용 섬유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시설조차 없는 상황이다.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산업용 섬유 기술 연구와 발전이 시급하다.

01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한 · 파 양국의 관계자들.
02 김진욱 공사(오른쪽)가 탄비르 후세인(Tanveer Hussain) 국립섬유대학 총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03 국립섬유대학에서 제작한 산업용 섬유 제품.
04 탄비르 후세인 총장이 김진욱 공사에게 산업용 섬유 장비의 가동법을 설명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맨체스터' 파이살라바드시에 건립

KOICA는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건립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1959년 설립된 국립섬유대학은 파키스탄 유일의 섬유산업 기능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대학이 있는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시(市)는 파키스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지역이다. 이곳에는 체나브강(Chenab River)의 넓은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밀과 목화, 사탕수수 등을 활용해 면, 견직물, 공업용 약품과 염료, 펄프 제지를 생산하는 제조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KOICA는 국립섬유대학 건물 내 산업용 섬유생산과 연구실험을 위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지난 6월 8일 산업용섬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2016년에는 센터 운영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두 차례 산업용 섬유 장비 운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역량 연수를 진행했다.
KOICA 파키스탄사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립섬유대학이 미래 섬유산업의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용 섬유 분야 시제품 개발과 시험생산 지원이 파키스탄 산업용 섬유 분야의 내수와 수출 증진,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 사진 봉민균(KOICA 파키스탄사무소 전 영프로페셔널)



KOICA의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자보건 개선사업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미소에서 동티모르의 미래를 발견하다

오랜 전쟁으로 사회 기본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시설·시스템이 부족한 동티모르는 신생아와 5세 미만 유아, 모성 사망률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아이나로주는 험준한 지형과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 이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아이나로주를 중심으로 동티모르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기본 인프라 열악

동티모르는 1975년 인도네시아 무력 강점 이후 2002년 분리 독립한 신생독립국으로서 독립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나라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사회 기본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시설·시스템이 부족해 여전히 신생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모성사망률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열악한 수준이다.

아이나로주는 동티모르 남서쪽, 수도 딜리로부터 약 110㎞ 거리에 위치하는 곳으로 6만6397명의 인구(2015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동티모르 최고봉인 라멜라우산(해발 2960m)에 인접한 아이나로주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과거 인도네시아 점령기에는 게릴라 활동의 요충지기도 했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과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수도 딜리에서 약 5~6시간 정도 소요돼 지금도 이동상 제약이 큰 지역이다.

아이나로주는 동티모르 지역 내에서도 모성 보건 수준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인데, 지역시설 분만율이 39.2%로 전국 평균인 61.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산악지역이라는 특성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인한 출산 직전 이동의 어려움, 시설분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서 비롯된다.



02



03

동티모르 정부는 2013년 9월 아이나로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숙련된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요청했다. 이에 KOICA는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형성 조사 등을 거쳐 2015년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인제대 사업단은 올해 2월 동티모르 보건부 관계자를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그룹으로 나눠 2번의 한국초청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자세한 사업 현황을 '현지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교육, 주민동업사업,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현지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교육

아이나로주 내 총 113명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 인력들은 사업의 핵심 구성원들이다. KOICA는 동티모르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산모관리와 분만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총 4가지 교육과정(필수 신생아 케어, 안전하고 깨끗한 분만, 소아질환 통합관리, 응급산과 케어)이 계획·운영 중이다.

필수 신생아 케어 과정에 교수로 참여하고 있는 팰패투아 아나 메리 에스텔라 라오씨는 "아이나로주 보건의료인력들이 모성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으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KOICA가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아직 이번 과정을 듣지 못한 아이나로주 보건인력들이 많으므로 추후 더 자주 교육과정이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반 의사이자 교육생인 마르쿠스 파울로 두스 산투스씨는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익힌 지식과 기술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며 "5일의 수강기간이 다소 짧게 느껴져 좀 더 길었으면 좋겠고, 다른 교육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② 주민동업사업

동티모르는 지역 주민들의 기초진료, 예방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각 지방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Aldeia(우리나라 리(里) 단위 행정구역)와 같은 기초행정 단위는 여전히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해, 동티모르 정부는 2010년부터 전체 13개 주에 '지역 통합 의료보건 서비스 운영 및 가족보건요원 활동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다. 다행히 올 상반기 KOICA의 도움으로 사업은 활력을 되찾았다. KOICA는 가족보건요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들의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보건요원 아나 에멜리타 데 아루조씨는 "2013년 교육에 처음 참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는데, 다시 교육을 받게 해준 KOICA에 감사하다"며 "평상시 마을 주민들이 가벼운 증상에 대해 물어보면 기초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답변을 못 하고 지역보건인력한테 확인을 받은 후 뒤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이론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KOICA는 아이나로주 2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사업도 펼치고 있다. 각 학교별 보건담당교사·학생보건요원을 선발해 학생들에게 청소년기 올바른 성의식, 건강한 피임방법, 성관련 질환에 대한 위험성, 위생관리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KOICA는 지난 6~7월 중 4일(6월 28~29일/7월 11~12일)간 학교장, 교사, 학생보건요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04



05

01
라멜라우산 정상.
02
KOICA 모자보건사업 홍보달력 포스터.
03
딜리~아이나로주 도로. 우기만 되면 도로가 진창길로 변해 차가 못 빠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04
필수신생아케어 과정의 실습 시연 수업.
05
SISCa & BPP 통합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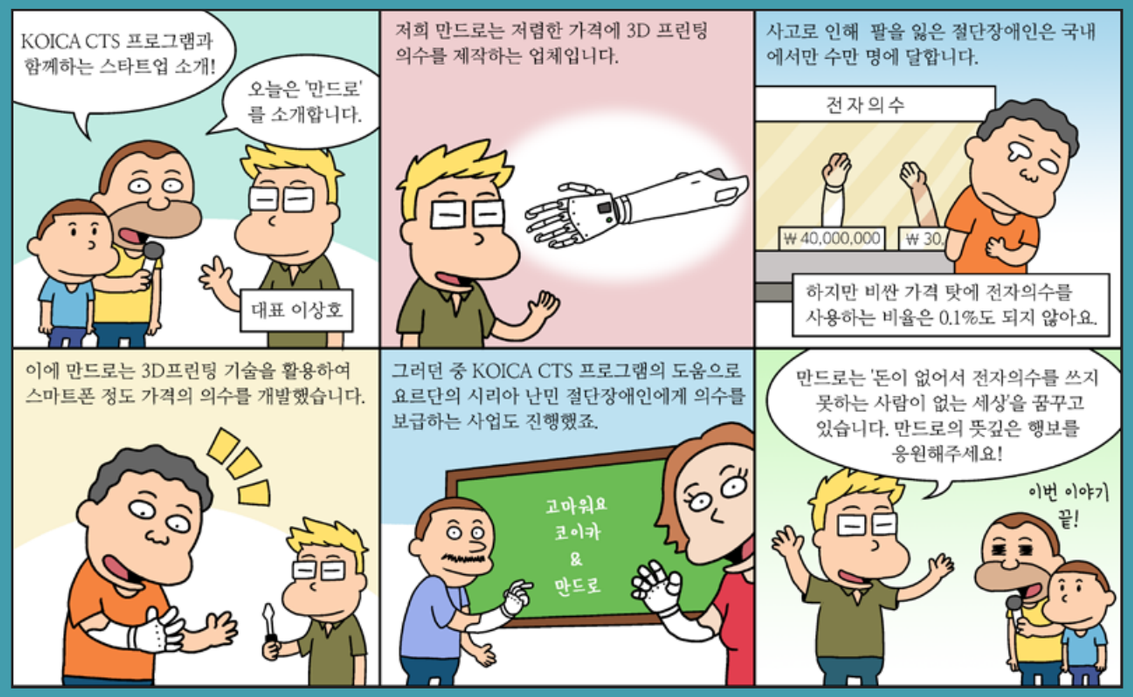
③ 하우티오 모자보건센터 건립

KOICA는 시설 분만율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아이나로주에 있는 기존 하우티오 보건소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300㎡ (150㎡ × 2개층) 규모로 모자보건센터를 신축 중에 있다.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에는 분만 대기실, 분만실, 회복실, 산파대기실, 가족대기실(주방 포함), 약품창고와 같은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KOICA는 의료기자재 지원은 물론 초진, 정기검진, 가족계획 상담, 교육(산모가족 포함), 미혼모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나로주 내 숙련 조산인력 분만율과 시설 분만율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의 모성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 최형민(KOICA 동티모르사무소 영프로페셔널)

|||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값싸고 효율적인 전자의수를 개발하다



만드로사의 '저비용 고효율' 전자의수 보급사업

내전 고통 시리아 부상 난민에 스마트한 전자손으로 삶의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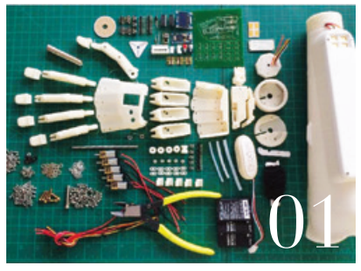
전쟁의 참상 속에서 손을 잃은 난민들에게 의수란 기대할 수 없는 의료·복지 혜택이다. 그러나 만드로는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전자의수를 제작해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손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CTS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드로의 전자의수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3D 프린팅 기술로 1000여 회 시행착오 거치며 완성

만드로의 저비용 전자의수 제작 프로젝트는 한 신체절단 장애인이 인터넷에 남긴 의수 제작에 대한 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비롯됐다. 얼마 후 그 사연의 주인공과 필자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를 위해 본격적인 의수 제작을 시작하게 됐다. 세상엔 사고와 질병으로 손을 잃게 된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그중 전자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0.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계기로 만드로는 단순한 3D프린팅 기업이 아니라 '누구든 필요하면 손쉽게 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전자의수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진일보하며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시스템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하루에도 3~4번 이상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다반사였고 사업시행 후 1년 반 동안 모두 1058번에 이르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재정비하며 완성품 실현에 다다르게 됐다. 마침내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가격의 3D프린팅 전자의수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즈음 KOICA의 CTS 2기 선발 공고문을 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KOICA CTS 2기 사업에 참여… '국경없는 의사회' 등과 협력

'만드로 전자의수를 해외에 내놓는다면 그 첫 지대는 어디가 합당할까?'라는 물음에 필자는 단연 내전과 분쟁 지역을 떠올렸다. 포격과 화염의 참상 속에서 신체가 절단된 사람들에게 만드로의 전자의수는 생명·신체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안면이 있는 요르단 출신의 지인이 몇 있었고 이들로부터 시리아 내전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요르단에 수용돼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한달음에 요르단으로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며 해외로 진출하는 꿈을 현실화했고 500대 분량의 전자의수를 요르단 내에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01
만드로의 전자의수.
02
전자의수로 다시 희망을 찾은 사람들.

인류애와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KOICA CTS 2기 사업 공모에 제출했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참가팀으로 선정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게 됐다. 요즘은 매월 요르단으로 출장을 가서 난민 캠프 및 시리아 국경지역, 그리고 요르단 수도 근방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전자의수 제작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 AMR, 요르단대학교, 왕립 군의수족센터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중이며, 2018년 4월까지 최대 100명의 직접 수혜자 대상 기부를 추진 중이다.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나 전쟁이 없는 시대 와야

2015년 1월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어느덧 2년 반이나 지나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전자의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빨리 이루겠다는 일념이 너무도 컸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에 정진하며 좀 더 멀리 넓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어서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된 것이다. 우리 생애에는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져 평생 동안 절단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가 없어야겠다. 물론 만드로의 기술이 그들을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만 말이다.

글·사진 이상호(만드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성매개질환 조기에 잡다



뷰노의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성매개질환 고통 몽골에 '한 줄기 빛'

몽골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성매개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등이 종종 의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뷰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미경 영상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진단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몽골 사람들도 전문가 수준의 진단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몽골 국민 30% 이상 성매개질환에 감염

몽골은 유목문화 특성상 청소년들이 조기 성경험에 노출되기 쉽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기 성경험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은 성지식이 부족해 피임 실천율이 떨어지고 성매개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증상이 거의 없는 성병의 경우 감염 사실 조차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알더라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 몽골의 실제 성병 환자는 국가의 공식 통계 1만3427명보다 2~3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몽골은 적은 인구 대비 드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시스템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WHO에 따르면, 조산 혹은 저체중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도 알려진 트리코모나스 감염은 전 세계 성병 중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모자보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성병이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트리코모나스는 간단하게 극복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치료 약물 2g만 있으면 쉽게 완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몽골의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트리코모나스 감염 여부조차 모르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뷰노의 딥러닝 기술, 조기진단 통한 조기 치료 가능

성매개질환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시에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뷰노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다.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거나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감염균의 특징과 형태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거나 판별이 어려운 감염균을 감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몽골 의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성매개질환의 조기진단은 물론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01
몽골 현지 의사가 질 분비물 성매개질환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질의 세포를 채취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한 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02
뷰노 관계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KOICA 사무소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이예하 대표, 김현준 대표, 이재은 프로젝트매니저, 졸라 통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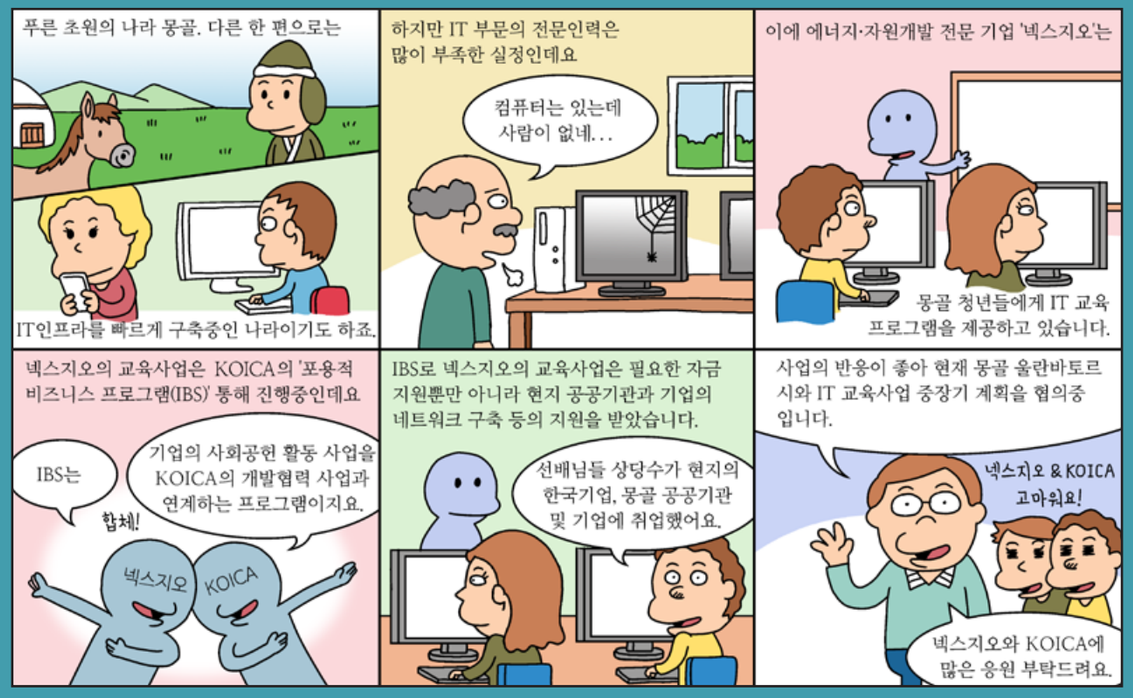


KOICA CTS로 몽골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뷰노는 지난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 2기로 선정되어 올해 2월부터 몽골에 트리코모나스를 진단하는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 ·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트리코모나스 진단 소프트웨어는 임상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기간 동안 몽골 현지에서 또 다른 질환을 찾아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몽골 현지 의료진에 큰 혜택을 줄 것이며, 이는 몽골 의료 사회에 큰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 사진 이재은(뷰노 프로젝트매니저)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몽골에서 IT 인재를 키우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몽골 청년들에 IT 교육 기회 제공 사업' 주도 황인규 넥스지오 전무

"KOICA와 협력하니 현지서도 신뢰감, IT 인재 키우면 몽골도 회사도 윈윈"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연평균 13.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IT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IT 부문의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한 한국 중소기업이 나섰다. 에너지·자원개발 전문기업 넥스지오는 몽골 청년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지오 황인규 전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Q_넥스지오는 에너지·자원개발 전문기업인데, '몽골'에서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몽골은 넥스지오가 2009년부터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넥스지오는 자원개발 회사지만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지질환경 정보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몽골에서도 '광물자원관리와 광해관리 정보화 사업' 등의 IT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숙련된 IT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몽골의 IT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넥스지오 역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_해당 사업에서 KOICA와 넥스지오의 역할은 뭔가요?

"이 사업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총 예산의 70%, 넥스지오는 30%를 부담합니다. KOICA는 인큐베이팅센터와 같이 추후 사업을 기획하고, 몽골 사무소를 통해 사업운영을 지원하죠. 넥스지오는 현지에서 MKIT(Mongolia Korea Information Technology)센터 운영, 수업교재 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맡습니다."

Q_KOICA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넥스지오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현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호응을 끌어내기 힘들었겠죠. KOICA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넥스지오는 현지 공공부처,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사업 진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01
일반주민 대상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정을 수강 중인 학생들.
02
수흐 오치르 몽골 울란바토르시 청년개발청장과 일반 주민 대상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정 3기 수료생들.

Q_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조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분위기라 해당 IT 교육을 진행하면 출석률이 높을지, 인력이 제대로 양성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수료 비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료 기준이 엄격해서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출석률과 시험점수를 획득해야 했는데도 수료자가 90%에 달했죠."

Q_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IT 전문용어는 단순통역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IT 용어 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몽골에 IT 전문교재가 없어서 몽골어로 된 교재들을 개발해야 했죠. 영어 원서나 한국 시중의 책들을 참고하여 JAVA, C# 등을 배우는 전문과정과 MS Office를 다루는 교양과정에서 쓸 교재들을 개발했습니다."

Q_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겠는데요, 그로 인한 성과가 눈에 보이시나요?

"2015년에는 IT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 23명이 현지의 한국 기업, 몽골 정부기관과 기업에 취업했죠. 올해부터는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과정에 5명을 선발하고, 한국과 진행하는 IT 아웃소싱 사업에 투입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Q_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현재 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청년개발청, 정부통신청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울란바토르시와 중장기 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우선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울란바토르시의 첫 시립대학 설립에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IT와 외국어에 특화된 대학을 세운다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이명지(KOICA 홍보실 인턴기자)·사진 임아영(KOICA 홍보실 인턴기자), 넥스지오
만화 홍세훈 작가

SDGs 16

SDGs 16번째 과제
'포괄적 사법제도와 행정제도의 확립'

정의롭고 합리적인 제도로 인간답게 사는 사회의 완성

이제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6단계를 살펴볼 차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력 있는 사회 구현, 사법 접근성 확보와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골자로 하는 SDGs 16의 설정 배경과 세부 목표에 관해 알아본다.





국제사회는 지난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폭력(Violence)과 분쟁(Conflict), 낮은 수준의 법의 지배(Low Rule of Law), 제도의 취약성(Fragile Institutions) 등을 지목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 법의 지배와 민주적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 금융상의 접근성 강화, 교통 ·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지리적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가령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주, 인도주의적 위기, 환경오염, 전염병, 무장충돌, 테러, 인신매매, 무기거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는 다른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전 세계가 불안정한 위협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화 구축 및 법의 지배,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MDGs에서는 이러한 세부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성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UN리우회의에서는 '자유, 평화 및 안보, 모든 사람들의 인권 존중, 법치,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개발을 위한 민주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전사적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SDGs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제도들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SDGs는 '평화로운 사회(Peaceful Society)', '법의 지배(Rule of Law)',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하나의 개발 아젠다로 상정했다. 각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며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상정한 SDGs 16번째 목표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기반이자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SDGs 16은 12개의 세부 목표(targets)와 23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2018년 동안 SDGs 전체 최종 지표에 대한 Tier 시스템 검토 및 보완, 재분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이용 가능성(Data Availability)이 떨어지는 Tier Ⅲ 지표를 중심으로 3가지 Tier 전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KOICA 공공행정 중기전략(2016~2020)



'SDGs 16' 부터 '보건' '성평등' 까지 아우르는 SDGs 16

SDGs 16은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을 통해 폭력 감소, 안전 보장, 국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정부 책무성 강화, 공평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장, 사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 등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현재 KOICA 5대 중점분야(교육 · 보건 · 공공행정 · 농촌개발 ·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의 범분야(성평등 · 기후변화대응 · 과학기술혁신)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수립함으로써 Post-2015 개발의제 중심의 성과 체계를 확립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략은 비전 및 미션, 관련 SDGs를 연계하여 수립되었으며, SDGs 16은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성평등' 분야 등에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글 김수진(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SDGs 17

SDGs 17번째 과제
'지속가능개발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수단 마련
16개 과제 달성을 위한 최종 노력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번째는 1번부터 16번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으로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19개의 세부목표와 40개 이상의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 목표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까? 그 내용과 의미, 우리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SDGs의 17번째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는 8번째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모태가 됐다. MDGs 마지막 8번째 목표는 나머지 7개 목표가 수원국들이 주로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공여국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으로서 ODA의 규모 감소와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모니터링 부재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SDGs 17번째 목표는 MDGs 8번째 목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파트너십의 주체를 공여국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설정했으며, 무엇보다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이행수단'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정리하자면, SDGs의 1번부터 16번까지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7번 목표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인 이행수단 마련

세계가 지속가능하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발전을 이루기 위해 SDGs 17번째 목표는 이행수단으로서 무엇보다 '개발재원의 마련', 즉 재원 동원 및 자금 조달을 우선적인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평등한 무역시스템 촉진과 그밖에 시스템 이슈로 대표되는 정책 일관성 제고, 다자간 파트너십과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세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7번째 목표는 다른 목표들과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크게 5가지 상위 요소인 개발재원, 기술, 역량배양, 무역, 시스템 이슈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지막 시스템 이슈는 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의 3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SDGs 17번째 목표를 위한 KOICA의 노력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과학기술혁신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KOICA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수립하고 하위 구성사업으로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 Inclusive Business Solution),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및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운영하고 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이 있다. KOICA는 CJ제일제당과 1:1 매칭을 통해 베트남 신(新)농촌발전계획과 기업의 농산물 대외 구입(Sourcing) 전략을 연계하여, 베트남 내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우간다 현지의 망고펀드와 협력하여 우간다 내 중소기업 대상 사업 자금 대출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과 LG생활건강,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가치사슬 창출을 지원한 '네팔 허브약초 화장품 사업' 등도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KOICA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청년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발굴하고,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개도국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부분과 관련해서 KOICA는 2015년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6년부터 IATI 규정에 부합하는 원조사업 정보를 공개하며 공여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유엔대학교 세계개발경제연구소와 '베트남의 포용적 성장–농촌 경제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해 베트남의 국가 통계데이터 수집과 연구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역량배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KOICA는 앞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ODA와 민간재원의 연계 등 개발재원 다각화, 무역을 위한 원조, 개도국 · 최빈국 · 취약국에 과학기술 및 혁신을 전파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사업개발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SDGs 시대에도 지식공유와 창의 · 혁신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 지구적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박인혜(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직원)